

◎ 國內經濟 經常收支 惡化속 物價不安 持續

朴 元 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經博〉

1. 國內外 經濟概況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말 예상과는 달리 9% 수준의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높은 성장은 그동안의 不動産價格의 급등으로 建設投資가 활황을 보이고 또한 올해 들어 약 30% 수준의 株價下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높은 건설투자와 소비에 의해 주도된 經濟成長은 그 代價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를 유발하기 마련이어서 올해 우리 경제는 9% 수준에 이르는 소비자 물가상승과 18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적자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지고 들면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함은 과거와 같이 물가안정과 經常收支黑字 속에서 高度成長을 이루어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적어도 實物生産에 관한 한 올해 경제가 어려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을 감내하며 家計를 꾸려가야 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올해 한해가 매우 어려운 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높은 經濟成長 내지는 높은 賃金上昇의 댓가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한해였다.

物價安定 없는 經濟成長, 경제성장 없는 물가안정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진대 내년에는 기필코 國際收支均衡을 지키면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리라는 정책적 결의를 다지기도 전에 지난 8월 초 돌발

된 中東事態는 91년의 國內經濟展望을 또다시 어둡게 하고 있다. 海外油價의 급등으로 우리의 수출 부진과 국제수지문제 및 물가불안은 당분간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海外經濟與件 展望

미국의 경제성장은 90년 1·4분기에 年率 1.7%에 그친 데 이어 2·4분기에는 年率 0.4%에 그쳐 중동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미국의 金融市場을 중심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成長鈍化는 곧바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美國經濟가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인가의 여부는 전세계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미 상반기중 民間住宅投資와 民間設備投資의 감소를 경험한 미국은 향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대출회수능력의 저하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투자주도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국제 원유가는 급년 상반기에 배럴당 16달러 내외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8월 초 중동사태의 돌발 이후 급등세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油價上昇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중동사태 이

후 달리는 약세로 반전함으로써 미국은 당장 성장둔화속의 물가불안을 걱정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물가불안을 없애려면 金融을 긴축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金融緊縮은 금리를 상승시켜 가뜩이나 가라앉은 경기를 더욱 후퇴시키고 전세계적으로 高金利와 資本不足의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내년도 世界經濟與件의 主要關心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째, 油價에 관한 전망이다. 금년 4·4분기중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는 油價의 내년 향방에 대해서는 예측기관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긴장이 완화 또는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에는 배럴당 22~25달러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페르시아만의 긴장을 완화하려 할 때에는 일시적 물량부족 현상으로 油價가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

비록 油價가 내년 하반기중 22~25달러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의 높은 油價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開途國의 경우에는 그 폐해가 훨씬 커서 우리나라의 경우 國際油價가 50% 상승할 경우에는 일차연도에 경제성장이 1% 남짓 낮아지고 물가가 2~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國際原資材價格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및 그 이후에도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美 달러貨의 換率調整 問題이다. 美 달러貨는 금년 11월까지 미국의 경기부진과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달러당 130엔을 밑돌고 있다. 미국 경기의 부진으로 美 聯準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美 달러貨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金融政策이 긴축으로 선회할 경우에는 다시 강세를 보일 전망도 없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예측기관은 내년말 달러의 환율이 125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油價上昇에 대처하는 주요 선진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不動產景氣의 전망이다. 금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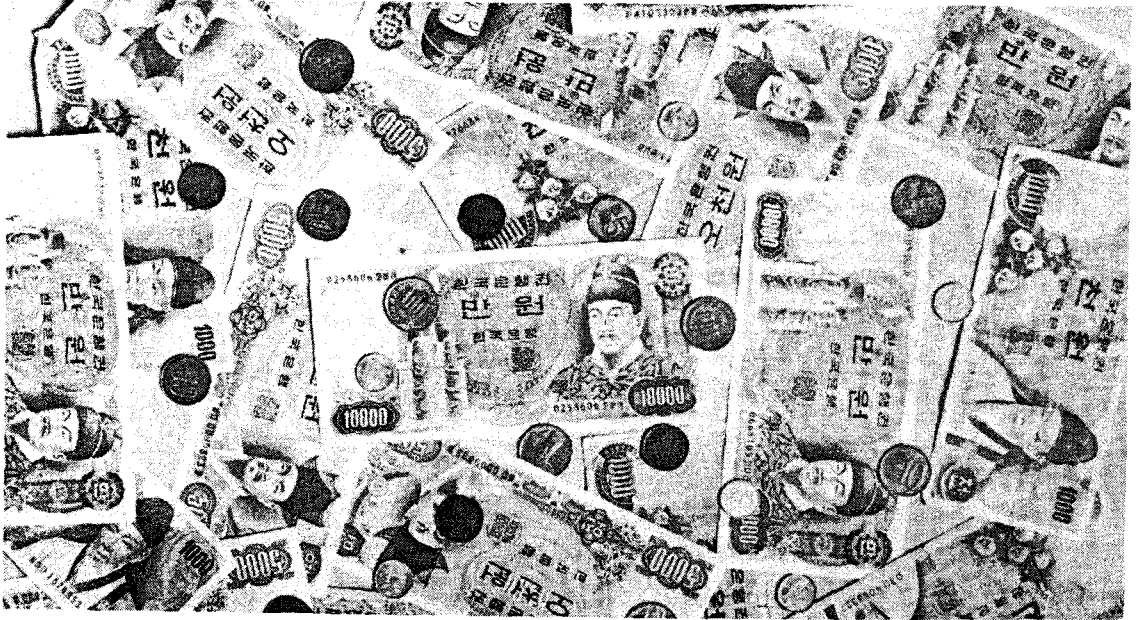
초 이후 일본의 株價는 약 40% 하락하고 부동산경기도 후퇴하고 있다. 86년 이후 恩貨強勢 속에서 진행된 일본의 高成長은 소비와 건설관련 투자의 호조에 뒷받침된 것으로 이는 거품經濟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채무상환 불능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油價上昇으로 인한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金融緊縮을 단행한다면 세계경제가 신용뭉박(credit crunch)으로 급속히 하강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의 중앙은행은 내년중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가격도 약 20% 떨어 뜨리기 위해서 금융을 긴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금융긴축으로 당장 투자가 위축될 것이지만 소비가 안정되고 恩貨가 강세를 보여 물가가 안정되며 株價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같이 통화를 긴축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전반적 금융긴축 하에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과 株價 및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일본과 대만의 株價가 각각 40% 및 60% 떨어질 때 우리나라의 株價도 약 30% 떨어졌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도 海外與件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미 건물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내년중 일본에서도 부동산가격이 20% 정도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어떠한 것인가? 부동산가격은 해외추세뿐만 아니라 국내 金融政策 基調 등 국내경제여건에도 달려 있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금융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한 油價上昇 속에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높은 경제성장이 그동안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활황과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한 소비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부동산가격의 안정 내지는 下落勢反轉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國內經濟 展望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에는 油價急騰의 효과가 파급되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성장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면서 經常收支가 악화되는 동시에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油價上昇과 달러貨의 切下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이와 동시에 원貨가 달러貨에 대하여 切下됨에 따라 「輸入 인플레이」가 예상된다.

수입 인플레이는 안정적 通貨供給下에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20%를 훨씬 넘는 增加勢를 보였던 建設投資活動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금년중 建設投資가 이례적으로 매우 높아서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금년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반면 全經聯에서는 내년중 建設投資가 13%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중 건설투자의 전망은 올해 2·4분기 이후 신규허가가 억제되고 있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규제가 91년에도 지속되는가의 여부와 海外의 부동산경

기 및 國內通貨政策의 긴축적 운용으로 어느 정도 국내부동산경기가 후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중 건설투자의 0% 成長 전망치를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책목표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내년도 건설투자증가율은 5~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관련 설비투자의 둔화와 유가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設備投資의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自動化 投資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海外需要의 둔화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賃金安定, 恩貨強勢, 元貨切下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꾸준히 개선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높은 수출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油價上昇으로 선진국 경기가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수출의 증가세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恩貨의 강세가 내년중 지속되고 賃金도 안정될 것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EC 地域 및 東南亞로의 수출다변화가 내년도에 더욱 가속화되어 對美 輸出의 부진을 상당히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금년중 높은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는 높은 賃金引上을 요구할 것이므로 내년의 賃金展望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賃金引上으로 경쟁국과 대비하여 노임단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출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었던 점과 油價上昇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 최근의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금년 2·4분기 이후의 賃金安定化의 추세가 내년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91년 국내경제의 모습은 <表-1>과 같다.

내년에는 건설 및 設備投資가 모두 둔화되고 소비도 둔화되어 經濟成長率은 7%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海外景氣不振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가격경쟁력의 개선과 수출다변화 전략으로 금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 증가세는 내년중 금년에 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다소 상회하여 내년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赤字는 각각 25억불 및 28억불로 확대될 것이다.

올해 이미 9%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는 내년도에 역시 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관건은 바로 물가안정이라고 하겠다.

91年 國內經濟展望

<表-1>

	89	90	91
실질GNP 성장 (%)	6.7	9.0	6.9
總 消 費	9.5	9.6	7.5
固 定 投 資	16.2	21.3	8.4
(設 備 投 資)	12.3	17.7	10.0
(建 設 投 資)	19.8	24.4	7.0
商 品 輸 出	-5.2	3.6	5.3
商 品 輸 入	14.3	14.2	5.6
經常收支 (억불)	51	-18	-28
貿 易 收 支	46	-15	-25
輸 出	614	630	682
輸 入	568	645	707
消費者物價上昇率 (%)	5.7	8.8	9.7

4. 主要 政策課題

내년 경제운영의 목표는 물가불안의 최소화와 설비투자의 진작 및 수출회복의 촉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賃金안정과 긴축적 경제운영이 추구되어야 한다.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協力的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도 임금안정의 댓가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금안정의 결과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근로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業績給制度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經營現況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 경영공개를 통해 노사간 화합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국가경제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중 財政은 赤字로 반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년에 비하여 재정의 흑자폭이 줄어들고 정부의 지출규모가 늘어나는 擴大財政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확대로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역시 물가상승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의 通貨政策은 긴축기조의 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상당규모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通貨를 긴축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상당한 民間信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通貨緊縮으로 물가 및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기업의 직접금융이 다시 활발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 조정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農村經濟의 현대화와 高度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 技術·機能人力의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高賃金·低換率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민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해지고 있다. ▲